

# DBpia

[명저탐방/원효, 『금강삼매경론 상·하』] 현대인들의 정신적  
방황은 화쟁(和靜)으로 치유 - 한마음의 근원은 삼공지해(三空  
之海)의 바다를 넘어서 -

---

저자                    조용길  
(Authors)

출처                    [철학과 현실](#) , 2004.3, 255-266 (12 pages)  
(Source)

발행처                [철학문화연구소](#)  
(Publisher)            philcultur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502217>

APA Style            조용길 (2004). [명저탐방/원효, 『금강삼매경론 상·하』] 현대인들의  
정신적 방황은 화쟁(和靜)으로 치유 - 한마음의 근원은 삼공지해  
(三空之海)의 바다를 넘어서 -. 철학과 현실, 255-266.

이용정보            삼성현역사문화관  
(Accessed)            183.106.106.\*\*\*  
2021/03/24 11:49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현대인들의 정신적 방황은 화쟁(和靜)으로 치유

-한마음의 근원은 삼공지해(三空之海)의 바다를 넘어서-

조용길/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 <1> 무아(無我)의 실존적(實存的) 체득을 통한 화쟁(和靜)사상

『금강삼매경』에 대한 주석서로, 원효(元曉, 617~686)가 주석서를 내기 이전에는 이 경에 대한 말이 어디에도 없었다. 찬녕(贊寧, 918~999, 中國 宋나라때 승려)의 『송고승전(宋高僧傳)』 제4권 원효전(元曉傳)에 논을 저술하게 된 연기(緣起)를 밝히고 있다. 원래 원효는 소(疏)라고 하였으나, 당나라의 변경삼장(翻經三藏)들이 소를 논(論)이라고 칭하였다고 한다. 중국·한국·일본인들이 찬술한 불교서적 가운데 논이라고 이름 붙여진 유일한 귀중한 책이다.

『금강삼매경』의 이름이 맨 처음 보이는 곳은 도안(道安, 314~385)의 「양토이경록(涼土異經錄)」이다. 이 경의 번역자는 잘 알 수 없으나, 북량(北凉)때 번역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승우(僧祐, 445~518)의 「출삼장기집(出三藏記集)」으로부터 그 이후에 이루어진 많은 경전 목록에는 한결같이 이 경의 이름만 전할 뿐 경은 이미 없어진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다가 730년 갑자기 지승(智昇)의

『개원록(開元錄)』에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 편입하였다고 하여 현존본(現存本)속에 기재하고 있다.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이 유통되기 시작한 50년 후의 일이다. 지승은 『금강삼매경』의 크기를 28지(紙)의 것이라 하였는데 현존본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7세기 후반에 나타난 이 경은 「도안록」에 기록된 양토이경 중의 『금강삼매경』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650년 이후에 등장한 위경(僞經)이라는 설이 제기되었다. 이 설에 의하면, 이 경은 교리 내용으로도, 번역 용어상으로도, 그리고 관련 설화로 보더라도 번역경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현장(玄奘)역 이후에만 등장하는 신역어(新譯語)가 이 경전에 나타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논거이다.

결국 『금강삼매경』은 당나라 초기, 대개 650~665년경에 중국 산둥(山東)지방 또는 요동(遼東)지방에서 씌어진 위경일 것으로 추측했던 것이다. 이 설이 정설로 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이는 이 경이 신라에서 만들어 졌으며, 그 작자로서 대안(大安)·사복(蛇福)·혜공(惠空)등을 들고 있다. 또 어떤 이는 그 작자를 신라 선덕여왕(632~646)시대의 법랑(法朗)이라 하고, 저작 연대를 676~685년이라고 추정하였다. 심지어 원효에 의해서 지어진 위경이라는 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원효 자신은 위경으로 생각한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다. 원효의 작이 틀림없다는 견해다.

이 경은 중국 남북조 시대에서 당초(唐初)까지의 중국불교에서 제기되었던 반야(般若)·법화(法華)·화엄(華嚴)·열반(涅槃)·정토(淨土)·선사상(禪思想)등의 모든 교리 학설을 혼합적으로 포함하여 모든 대승 경전의 근본사상을 회통하고 있는데, 원효의 논(論) 없이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압축된 문장이어서 이 논문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이 경의 안에는 대승의 공사상(空思想)이 깊게 깔려 있고, 『금강반야경(金剛般若經)』이나 『중론(中論)』의 계승에 나오는 문구와 극히 비슷한 것이 발견되며, 『반야심경』의 주명(呪名)과 같은 표현도 보인다. 또 화엄(華嚴)의 교리로서는 삼계허망유심조(三界虛妄唯心造)의 사상과 『보살영락본업경(菩薩瓔珞本業經)』이나 『법망경

《梵網經》의 십신(十信)·십주(十住)·십행(十行)·십회향(十廻向)·십지(十地)·등각(等覺)·묘각(妙覺)의 52위설(位說)등이 들어 있다. 또 재가(在家)의 가치를 존중하는 이론을 내세우고 있는 『유마경』의 주장을 방불케 하고, 회삼귀일(會三歸一)이라든가 장자궁자(長者窮子)의 비유 등은 『법화경』과 관련이 있으며, 상락아정(常樂我淨)이라는 말이나 불성(佛性)·여래장(如來藏), 그리고 일천제(一闡提)등에 관한 말은 『열반경』과 관련시켜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의 기본적인 입장은 『대승기신론』의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무상법품(無相法品)·무생행품(無生行品)·본각리품(本覺利品)·입실제품(入實際品)·진성공품(眞性空品)·여래장품(如來藏品)·총지품(摠持品)등의 일곱품으로 나뉘어져 있다.

무릇 좋다(好)·나쁘다(不好)·이름답다(美)·추하다(醜)·높다(高)·낮다(底)·길다(長)·짧다(短) 등의 차별이 없는 평등(平等)의 세계, 곧 영구히 변치 않는 우주의 온갖 사물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여실지견(如實知見)·있음(有)·없음(無)에 집착하는 그릇된 생각을 떠나서 오직 맑고 깨끗하다.

‘나’(我)라고 하는 고정적 실체(實體)가 없으므로 ‘나’는 영구(永久, 영원)한 것이 못 된다는 것(我空)과 유형(有形)·무형(無形)의 모든 존재는 고정적 실체가 없이 빈 것이며 없는 것(법공(法空)), 그리고 그 아공(我空)·법공(法空)이라는 것도 모두 실체가 없다는 구공(俱空)의 세 가지 실체 없음(三空)은 바다처럼 넓다. 따라서 모든 존재는 집착된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은 실체(實體)가 아니고 무상(無常)한 것이며 그 고정된 실체가 있지 않다고 하는 진리의 세계(진제 眞諦)와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과(因) 조건(緣)에 따라 거짓으로 만들어져 존재한다고 하는 현상의 윤회세계(속제 俗諦)가 막힘없이 통한다. 그리하여 그 평등세계는 한없이 편안하고 고요하다. 편안하고 고요하기 때문에 돌이 막힘없이 통하지만 하나라고 할 수는 없다. 평등의 세계는 오직 맑고 깨끗하므로 있음(有)·없음(無)에 집착하는 두 가지 그릇된 견해로는 알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운데 즉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는 아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도 아니고, 있음·없음의 두 가지 그릇된 견해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본래 있는 것이 아닌 존재라고 해서 그것은 곧 ‘정말로 없다’고 하는 허망한 단견(斷見)의 견해에 사로잡혀서도 안 되며, 그 모양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은 곧 ‘실제로 있다’고 하는 상견(常見)의 견해에 사로잡혀서도 안 된다.

하나라고 할 수는 없으나 둘이 막힘없이 통하므로 깨달음의 세계에서 평등 무차별의 이치, 진리라고 할 수 없는 현상이 본디 중생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이치가 곧 깨달음의 세계에서 평등무차별의 이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 둘이 막힘없이 통하지만 하나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진리의 세계와 현상의 세계의 모습이 어디에나 있고, 세속에 물들어 더러워진 모습이나 깨달음의 세계에서 맑고 깨끗한 모습을 다 갖추고 있다.

있다 라고도 할 수 없고, 없다 라고도 할 수 없지만 중간도 아니므로 있음·없음의 법이 어디에서나 일어나고, 옳고 그름의 뜻이 어디에나 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은 여러 가지 조건에 의존하는 것으로 실체가 없는(無我) 것임과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거짓 가상으로 존재하는(空) 것으로서,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는 그 존재성이 인정되는 가상의 도리이다.

따라서, ‘정말로 없다’, ‘실제로 있다’ 하는 견해에 집착하는 것을 깨뜨리는 일이 없으면서도 깨뜨리지 않는 일이 없고, 존재하는 것이 없으면서도 또한 존재한다. 이것은 ‘참으로 모든 것에 다 통하는 절대적인 도리이며, 어느 한쪽에서만 생각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주 크고 넓게 생각하면 어느 것이나 다 옳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이 경의 기본 줄거리의 뜻을 풀이한 것이다.

## <2> 한 마음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평화

원효는 이 『금강삼매경』의 가장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한 마음의 근원’이요, ‘세 가지 실체 없음의 바다(三空之海)’로서 체계적으로 훌륭하고도 분명하게 풀이하었다.

그의 논리체계는 모든 대승경전의 근본적인 뜻을 한데 묶어 하나로 크게 완성하여 모자람이나 흠이 없게 하였다. 그는 모든 사물과 현상의 궁극적인 존재양식을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화쟁(和諍)의 논리를 구체적으로 구김없이 나타냈다. 다시 말해서, 이 『금강삼매경론』은 원효 사상의 총결산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그리하여 누구나 한 마음을 깨우쳐 그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과 그것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정신적 가난으로부터 해방시켜 풍요로운 정신세계에 들어가도록 도와주어, 평화와 질서가 공존하는 깨달음의 세계, 통일된 세계를 지향하도록 이끄는 데 보살 수행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것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낸 것이 『금강삼매경론』이다.

『금강삼매경론』은 원효의 현존 저서 중 가장 난해한 책이다. 이 책은 원효의 화쟁사상(和諍思想)의 핵심이 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원효는 이 논에서 교설(敎說)을 원활하게 유통시키기 위해 『화엄경』, 『기신론(起信論)』 등의 대소승경론(大小乘經論) 30여종을 90여회에 걸쳐 인용하였다. 이 논문은 서분(序分)·정종분(正宗分)·유통분(流通分)의 3분으로 그 내용이 조직되어 있다. 이 중에서 원효의 독창적인 사상이 가장 집약적으로 표현된 부분은 서분이다. 원효의 이 논문은 독보적인 불교전문술어들을 사용하여 다른 경전의 설명과는 다른 새로운 맛이 보인다. 확실한 교리의 논리적 전개를 위주로 하기보다는 문자와 문구를 매개로 하여 깊은 선정(禪定)을 요구하는 것이 주안점으로 되어 있고, 선교일치(禪敎一致)의 교설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

『금강삼매경론』은 『대승기신론』의 이해가 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대승기신론』의 공부( 공부)가 선행되어야 한다. 『금강삼매경론』은 『대승기신론』의 심리학을 토대로 하여 구축된 실천적·초월적 진리 체험의 이론이며, 선(禪)의 철학서라 할 수 있다.

원효의 화쟁 사상은 바로 각기 다른 주장과 논리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파악하고 대립을 지양하면서, 어느 한편의 주장이나 이론만 옳다고 고집하지 않는 데 있다. 이 대립 지양의 정신이 『금강삼매경론』의 근본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원효의 독창적인 사상구조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를 원효의 화쟁(和靜)사상이라 하며 평화의 제시이며, 불타(佛陀)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킨 것이다.

### <3> 영험 설화의 진실

찬녕(贊寧)이 지은 「송고승전」의 원효전에서 이 경의 연기설화를 보면 “신라왕의 부인이 머리에 악성 종양을 앓았는데, 어떤 약도 효험이 없고, 산천의 영험이 있는 사당에 기도하여도 조금도 병이 낫지 않았는데, 어떤 제사장이 다른 나라에 사람을 보내 약을 구하면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여, 왕은 바로 사자를 당(唐)으로 보냈다. 도중에 바다 속에서 한 노인이 나타나, 그의 안내로 용궁으로 검해(鈐海)라는 용왕에게 사자는 갔다. 궁중에는 이각(二覺, 本覺과 始覺, 본디 맑은 마음과 수행에 의하여 되찾은 마음)이 원통(圓通)한 보살행을 나타내는 『금강삼매경』이라는 경전이 이전부터 있었다. 용왕은 사자에게 이르기를, ‘이제 그대 나라 왕비의 병에 의탁하여 증상(壇上)의 인연을 맺고, 그대 나라에 이 경을 유포하려고 한다’ 하면서, 30장 정도의 앞뒤가 뒤섞인 경을 주면서, 돌아가는 길에 마귀의 꾀방을 받을까 염려하여 사자의 넓적다리를 베어 거기에 넣고 봉하여 약을 바르니 감쪽같았다. 용왕은 사자에게 이 호트러진 경을 대안성자(大安聖者)에게 바르게 순서를 바로잡게 하고, 원효 법사에게 부탁하여 경의 해설서를 지어 설명회를 가져, 경의 뜻을 풀이하게 하면 왕비의 병은 반드시 나올 것이니, 설산(雪山)의 영약(靈藥,

아가타)도 거기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고 쓰고 있다.

버스웰(R. E. Buswell)은 이 설화에서 용궁에 있는 많은 경전 가운데서 『금강삼매경』이 발견되었다고 하는 데에서, 호국 호법의 용신신앙(龍神信仰)에 의한 토착 신앙의 사의례(蛇儀禮)의 동화촉진(同化促進)과 『반야심경』등 인도에서 지어진 대승의 여러 경전에서 『기신론』과 같이 이각(二覺)의 가르침이 설해진 정당한 성전(聖典)으로서 『금강삼매경』의 권위를 합법화한 일 등을 찾고 있다. 통일신라 불교의 위상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전의 권위를 드높일 필요로 이 설화가 등장했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신론』과 같이, 원효에 의한 전통적인 주석이 필요했다는 것을 불치병의 치유라는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 설화는 이 경이 확실히 신라에서 씌어졌음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설화에 의하면 신라에는 광략이소(廣略二疏)가 있었다지만, 중국에는 약소(略疏) 5권을 썼는데, 경박한 무리에게도 난당하여 3일 연장하여 약소 3권을 써서 황룡사(皇龍寺)에서 설명회를 열어 풀이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어떤 이는 처음부터 광소는 없었고 약소만 있었는데, 원효의 뛰어난 재능을 과시하기 위해 설화를 구성하였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한다. 찬녕은 광본을 직접 보지 못했으며, 국가적인 관심과 배려에 의해 씌어진 원효의 소를 누군가가 훔쳤다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3일만에 원효가 다시 3권의 소를 썼다는 것도 의심스럽다. 원효가 아무리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다고 해도 현존하는 3권본을 3일만에 완성했다고 믿기에는 그 분량이나 내용으로 보아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5권본이 유통된 흔적을 찾아보기도 어렵고, 여러 목록에는 3권본만이 보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疏)를 논(論)이라고 한 것은 중국에 약소가 들어왔을 때 경전을 번역하는 학자들이 소를 논이라고 고쳤다고 찬녕은 전하고 있으나 누가, 무엇 때문에, 언제 소를 논이라고 했는가가 분명하지 않고, 사실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어떤 이는 본래부터 소(疏)가 아니라, 원효 스스로 『금강삼매경론』이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원효가 경의 문구를 인용하여 자기의 견해를 이야기하는 것이 경의 작자와 논의 작자가 동일인은 아닐까하는 생각을 일으킬 정도로 그의 태도는 확신에 차 있다고 하는 점에서, 삼장(三藏)의 논(論)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논석(論釋)·논해(論解)의 의미로 사용하여, 원효의 이 논술에 대한 강한 자긍심(自矜心)이 스스로 예외적으로 이러한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또 중국에서 논이라고 고쳤다면 많은 경소(經疏)가 퍼졌을 텐데, 신라나 일본에 경소라는 제목으로 퍼진 예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을 들어 처음부터 경론이었다는 주장의 근거를 제시한다.

이 경론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깨달음을 이루어 부처가 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모두가 진실로 깨우치게 하는 가르침이다. 가르침은 깨달음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이고, 가르침 자체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가르침에 의해 자기를 깨닫고, 깨달음에 의해 가르침을 떠나는 데에 가치와 목표가 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 모든 불교사상을 하나로 묶어 한 곳으로 통하게 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경의 목적은 스스로 깨달음을 이루는 것, 자기가 주인임을 확인하고, 본디 마음을 되찾는 것이다.

#### <4> 금강(金剛) 삼매(三昧)의 지혜(智慧)를 생활로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탕이 굳세고 무엇이든지 깨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진 금강저(金剛杵)라는 무기에 비유하여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이 금강저는 무엇으로도 이를 파괴할 수 없지만, 다른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무기이다. 이는 힌두 인드라신의 번개의 불칼이라고도 한다.

‘금강삼매’라는 말의 뜻도 이와 같아서 실제(實際, bhūta-koti),

곧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의 본성이며, 모든 존재의 있는 그대로의 참 모습인 진리, 진실한 세계를 본바탕으로 하고, 뚫어서 통하게 하는 것을 그 작용으로 삼는다. 여실지견(如實知見)의 깨달음 그 것이다.

진실의 세계를 본바탕으로 삼는다는 것은, 모든 사물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인 진리를 깨달아 그 마지막까지 알려고 속속들이 파고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경의 본문에서 ‘존재의 진실을 아는 선정을 깨치네’라고 한 것이다. (제2장 서품, 제1절 3, 끝계송 참조)

‘깨뜨리고 뚫어서 통하게 하는 것을 그 작용으로 삼는다’는 것은 두 가지의 뜻이 있다. 첫째는 확실히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여 이상하게 생각함으로써 사물의 옳고 그름, 좋고 나쁨, 크고 작음 따위를 헤아려 가려내지 못하는 모든 의심을 깨뜨려 부수는 것을 말하고, 둘째는 마음을 한 곳에 모아 참되고 바른 이치를 생각하고 괴로움을 떠나서 고요한 경지에 이르게 하는 모든 선정(禪定)을 꿰뚫어서 서로 통하게 한다는 뜻이 있다.

‘모든 의심을 깨뜨려 부순다’는 것은,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으로 모든 의심을 끊어 버리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이 경의 본문에서 ‘반드시 의심과 뉘우침을 잘라 낸다.’고 말한 것과 같다. (제2장 서품, 제1절 3, 끝계송 참조)

‘모든 선정을 꿰뚫어서 서로 통하게 한다’는 것은, 이 금강저 같은 선정이 다른 모든 삼매(三昧)로 하여금 그 가치를 나타내게 하기 때문이다. 마치 보배로운 구슬에 구멍을 뚫어서 목걸이·팔찌 등을 만들어 그 가치를 나타내게 하는 것과 같다.

『대품반야경(大品般若經)』에서 말하기를, “금강삼매란 무엇인가. 이 삼매에 머무르면 모든 삼매를 깨뜨릴 수 있다.” 하고, 이 말을 알기 쉽게 풀이한 『대지도론(大智度論)』에서 “금강 삼매란, 마치 금강저가 깨뜨리지 못하는 물건이 없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이 삼매로 금강저가 무엇이든지 깨뜨리는 것과 같이 모든 존재의 참 모습을 막힘없이 환히 알고, 모든 삼매가 다 그 가치를 나타내게 한다.

마치 거거(磳磳), 마노(碼瑙), 유리(瓊璃) 등의 단단한 보석은 오직 금강저만이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삼매’라는 말을 풀이하는 데에도 두 가지가 있다. “옛 인도 말인 산스크리트의 삼마디(samadhi)를 그 소리를 빌어서 삼매(三昧)라고 하며, 이것을 한자로 번역하면 정사(正思), 곧 바른 생각이다.”고 하였는데, 지금도 이 말을 쓰는 것은 이 경의 뜻에 딱 알맞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마음을 한 곳에 모아 참되고, 바른 이치를 생각하고, 괴로움을 떠나서 고요한 경지에 들었을 때에 우리가 느낌을 통하여 마음으로 인식하는 대상, 곧 눈으로 아름다운 꽃을 보고 꽃이 거기 있음을 아는 안식(眼識)의 대상인 모양·빛깔 따위, 귀로 음악을 듣고 그것이 멋지다고 아는 이식(耳識)의 대상인 소리, 코로 냄새와 향기를 아는 비식(鼻識)의 대상인 냄새·향기 따위, 혀로 맛을 아는 설식(舌識)의 대상인 맛, 몸에 무엇이 닿으면 느껴 아는 신식(身識)의 대상인 살갓에 닿아서 받는 느낌, 일이나 행위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고 울고 웃는 등의 분별작용인 의식(意識)의 대상인 사물 등에 대하여 깊이 살피고 바르게 생각하는 까닭에 정사(正思)라 하는 것이다. 또 올바른 집중(集中)이라고도 한다.

### <5> 상대적 관념을 뛰어넘어야

또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삼마지(三摩地)라는 것은 우리가 느낌을 통하여 마음으로 인식하는 대상에 대하여 자세하고 바르게 살피, 마음을 한 대상의 본바탕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다음과 같이 물을 것이다. 마음을 한 곳에 모아 참되고 바른 이치를 생각하고, 괴로움을 떠나서 고요한 경지에 이르게 하여 움직이지 않는 안정된 상태인 선정(禪定)이란 마땅히 고요하여 안정된 상태를 말하며, 고요하고 안정된 상태란 마음을 한 곳에 머무르게 함을 말하는데, 어찌하여 자세하고 바르게 살핀다 하겠는가?

생각하고 살핀다는 것은 반드시 대상의 뜻과 이치를 찬찬히 헤아려 생각하고 살핀다는 말인데, 어찌하여 마음을 한 곳에 모아 고요한 경지에 이르러 움직이지 않는 상태인 선정을 말하면서 생각하고 살핀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 물음에 대하여 답하기를,

만약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그 한 곳만을 굳게 지키는 것을 선정이라 한다면, 정신이 흐리멍덩하거나 지나치게 마음이 쏠려 헤어나지 못한 채로 한 곳에 머무는 것도 마땅히 선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바르게 생각하고 살피는 것을 대상에 대하여 그 뜻과 이치를 찬찬히 헤아려 생각하고 살피는 것이라고 한다면, 올바르게 못한 생각으로 사물의 이치를 헤아리거나 찾는 것은 마땅히 생각하고 살피는 것이 아니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생각하고 살핌’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만약 그릇되거나 올바르게나 간에 생각이나 말로 헤아려 아는 것을 ‘생각하고 살핌’이라고 하면, 이것이 곧 사물의 뜻과 이치를 찬찬히 헤아려 생각하고 살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곧 헤아려 아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자세하고 바르게, 그리고 밝고 또렷하게 인식되는 대상의 세계를 깨닫는 것을 ‘바르게 생각하고 살핌’이라고 한다면, 이때 ‘바르게’는 선정의 작용이지, 사물과 뜻과 이치를 알려고 찬찬히 헤아려 생각하고 살피는 것은 아니다. 선정은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고 헤아려 아는 분별(分別)과 헤아리지 않는 무분별(無分別)에 두루 통하므로, ‘자세하고 바름’은 그대가 말하는 ‘사물의 뜻과 이치를 알려고 찬찬히 생각하고 살피는 것’과는 다르다. 고 하였다.

또한 ‘한 곳에 머무름’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하였으니,

만약 한 곳에 머물기는 하나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어 자세히 살필 수 없다면, 이것이 바로 ‘정신이 흐리멍덩하여 헤어나지 못함’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한 곳에 머물면서 마음이 그곳에 푹 빠지

거나 들뜨거나 하지 않고, 자세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살핀다면, 이런 상태를 바로 선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생각하고 살핌’은 ‘정신이 흐리멍덩하여 헤어나지 못함’과는 다른 것이다. 따라서 마음이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선정에 들었다’하고, 마음이 옮겨 다니면 흐트러져 ‘선정에 들지 못했다’하는 식으로 ‘머무름’과 ‘옮겨 다님’을 구별하여, 서로 다르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됨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의 옳고 그름, 좋고 나쁨, 같고 다름을 재빨리 가려서 아는 것은 비록 마음이 빠르게 옮겨 다녀도 선정의 상태에 있기 때문이요, 그리고 둔한 생각은 비록 오랫동안 마음이 한 곳에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흐트러져 온갖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선정의 상태에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 ‘금강삼매’를 정사찰(正思察), 곧 바르게 생각하고 살피는 것이라 했는데, 사실은 바르다든지 바르지 못하다든지 하는, 서로 맞서거나 비교되는 관계에 있는 상대적 관념을 뛰어넘었으며, 생각도 생각 아님을 뛰어넘었으나, 다만 그릇된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가려내고, 그리고 허공처럼 아무런 생각도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하여 할 수 없이 ‘바르게 생각하고 살피는 것’이라고 불렀을 따름이라고 ‘삼매’라는 이름을 풀이하였다. 원효의 『금강삼매경』은 난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번에 발간한 새로운 번역서에서는 알기 쉬운 해설과 주를 많이 달아 이 책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접근하게 하였다.

---

조용길/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동국대 불교학과 및 동 대학원 학위 취득  
 저서 : 『불교와 자연과학』(공저), 『생명의 위기』(공저)  
 편역서 : 『아함성전(阿含聖典, Agama sūtra)』, 『금강삼매경론』상·하(번역)  
 논문 : 『불교의 생명윤리관』, 『아함경의 성립과 잡아함경에 관한 고찰』, 『불교의 생명 그물과 생태환경 윤리관의 인드라마』 등